

“신랄한 서평이 양서 만든다”

현택수 |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개가식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 보라. 그 수많은 책, 책, 책들... 군대에서 열병식하듯 수많은 장서들이 우리에게 위압감과 경외감을 주며 엄숙하게 꽂혀 있다. 나에게 대부분의 책은 언제나 진지하고 무거운 그 어떤 존재로 다가왔다. 그러나 좋은 책만이 때때로 나에게 감탄과 흥분을 느끼게 한다. 아무튼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 보통 사람들은 책이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책에 경외감을 품고 있다. 나 역시 직업상 책을 많이 접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에서 찬사와 경외감을 보낼 만한 책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나돌고 있는 모든 상품의 질이 천차만별이듯 책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가장 독창적이고 정직하며 치열하게 써야 할 학술서적들도 쓰레기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 즉 새로운 발견이나 주장 없이 상투적인 인용과 각주만 그득하게 나열돼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오역 등으로 졸속 번역된 엉터리 책들도 많다. 어떤 책들은 외국 책의 일부를 베끼거나 통째로 베낀 것도 있다. 심지어 어떤 책들은 저자인 교수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런 책들 가운데는 인용한 내용의 출처가 쪽마다 다르게 표시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인용한 책과 참고문헌을 사실상 저자가 읽어보지도 않고 이것저것 짜깁기하면서 마구 베껴거나, 제3자에 의해 씌

어졌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책들이다.

이런 책들이 소위 권위 있는 메이저급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학술총서까지 제대로 검증을 거치지 않고 마구 찍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시리즈 가운데 어떤 책은 오역 투성인데 어이없게도 무슨 번역상을 받기도 했다. 또한 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어떤 책은 엉터리 인용이 가득하고, 제자들과 공동 집필한 장들이 서문에서 얼버무려지고 목차나 본문에서는 전혀 밝혀지지 않음에도, 어떤 학술상을 받았다. 도대체 상을 수여하기 전에 심사는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읽지도 않고 추천만 하나? 적어도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그 책을 읽어보고 검토했다더라면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예전에 한 일간지에 정기적인 서평을 써 봤고, 요즘도 간간히 서평을 쓰고 있지만 정말 서평할 만한 책이 드물다는 점을 재삼 느낀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 올해의 책, 한국의 금세기 명저로 무엇을 손꼽을 수 있겠는가 등 서평과 추천의 요청을 받을 때마다 자주 머뭇거리게 된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양이 증가하고 책 쓰는 사람도 많아져서 좋은 책들이 더욱 많이 나와야 할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저 무늬만 책인, 책값지 않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글쓰기와 책 만들기에서 진지함, 성실성, 양심이 결여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

이처럼 남의 책의 단점과 저자의 비양심적 집필태도를 발견하고 비판하기는 쉬우나, 나 역시 책을 잘 쓸 자신감은 없다.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저자들을 쥐구멍으로 몰 수 있는 신랄한 서평문화가 착근돼야 양서가 증가할 것이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정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의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일허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